

## 모유수유지식에 따른 수유형태에 관한 연구

최 소 영\*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영아기의 건강은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틀이 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영아 건강을 위해서는 이 시기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영아 영양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다(김숙영, 1994). 모유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이상적인 수유방법으로 모아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모유는 영아에게 완전한 영양 식품일뿐 아니라, 감염 및 면역학적 측면에서도 최상의 식품으로 구 우수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Gulick, 1983).

그러나 연구자와 연구대상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이지만, 우리나라 1970년대의 모유수유율은 46.0%-68.9%이었으나, 80년대는 36.0%-49.6%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90년대에 이르러서는 21.4%-35.4%로 모유수유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이경혜, 1992).

이러한 감소이유는 인공 영양법의 개발에 따라 수유가 간편해 졌으며, 모성의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 결여 및 성의 부족, 인공 영양이 시대적 유행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인공 영양을 권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과잉광고의 결여로 마치 조제유가 모유보다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쉽게 인공유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인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도가 결여됨 및 여성의 사회진출 등이다(최순옥, 1987). 이러한 이유로 근래에는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모유 먹이기 운동을 실시하여 모유수유확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간호사가 주체가 되어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연구들도 다양한데, 이러한 문헌들에 의하면 모유수유 실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변수들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지식에 대한 것으로, 어머니들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모유수유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들이다(김화숙, 1991; 조미영, 1992).

1998년 일신기독병원 간호사업부 주최의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간담회 및 사례발표에서는 토론들 모두가 모유수유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모유수유 교육을 하면 태도가 좋아지고 실천률이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교육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므로 모유수유 실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산모가 병원에 머물고 있는 동안의 개별적인 교육과 지지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효과가 크다(변수자, 한경자와

\* 경상대학교 병원 간호사  
계재 인정일 2002년 3월 9일

이자형, 1994)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유수유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모유수유에 관한 의료인과 임산부들의 지식과 태도(김혜숙, 1995; 변수자 등, 1994), 모유수유실태(가족계획연구원, 1977;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1992), 모유수유실태요인(김화숙, 1991; 오현이 등, 1994) 등이었다. 최근 들어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산전, 산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미중, 1996; 남은숙, 1995; 정금희, 1996). 정귀영 등(1983)은 모유수유의 실패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지식부족을 들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지식은 모유수유의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에 따른 수유형태를 알아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모유수유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모유수유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유형태를 알아본다.

셋째, 수유형태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를 알아본다.

## 3. 용어의 정의

1) 모유수유: 분만 후 1개월 되는 시점에서 아기에게 모유만을 먹인 경우를 말한다.

2) 혼합수유: 분만 후 1개월 되는 시점에서 아기에게 모유와 우유를 같이 먹인 것을 말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를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II. 문헌 고찰

## 1. 모유수유동향

성장기의 영유아에 있어 영양은 매우 중요하며 모유수

유는 영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이상적인 수유방법으로 모아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모유는 아기에게 완전한 식품일뿐 아니라, 감염과 면역학 측면에서도 최상의 식품으로 그 우수성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Gulick, 1983). 그러나 이러한 모유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965년 분수가 소개된 이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서울 지역의 모유수유율은 1970년대 초반 까지 만해도 88.2%(지미숙, 강길원, 197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전국 40개의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김경희 등(1985)의 연구에서는 44.8%의 모유수유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모유수유 감소경향은 199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박노원 등(1993)은 서울 일부 지역의 모유수유율을 37.7%로, 1993년 서울에 종합병원과 보건소에 내원한 3세미만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 16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변수자 등(1994)의 연구에서는 26.1%의 모유수유율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효진과 박영숙(1992)의 연구에서는 14.9%에 그쳤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인공수유하는 경우 중에 70.6%는 모유를 시도하였던 경험이 있으며 그 중 64%가 1개월 이내에 포기 하였다고 하였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1994년에 214개 보건소를 방문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단위 조사에서는 산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율은 28.8%로 밝혀져 60년대 말과 비교하여 1/3수준밖에 안된다(박인화, 황나미, 1994).

이러한 여러 문헌을 종합해 볼 때, 1970년대 이후 모유수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이 간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2.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실천

모유수유율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정귀영과 이근(1983)에 의하면 임신부의 90%이상이 모유수유를 계획하나 61.6%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지호 등(1993)의 연구에서도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가졌으나, 실제 모유를 먹이는 산모는 28.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상자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이은주(1997)의 연구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모유수유율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모유수유율이 저조한 원인중의

하나를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을 들고 있다. Ellis(1993)는 결혼전 여성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습득의 기회가 적어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어 결국 모유수유과정에서 겪게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Beske와 Garvis(1982)는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모유수유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숙영(1994)이 모유수유지식과 실천과의 관계를 서술적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입증한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모유수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조미영, 1992).

또한 박옥희(1992)는 산전 유방의 관리를 제공한 후 모유수유 증진에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산전 유방간호를 받은 집단은 산후 2개월의 모유수유율이 70.6%로 유방관리를 제공하지 않았던 집단의 25.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함으로써 산전 간호 중재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Gupta와 Gupta(1992)는 산전교육보다는 적극적인 산후중재가 모유수유 증진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것은 산전뿐만 아니라 산후 의료진이 모유수유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태도를 보이면 산모들의 모유수유가 성공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학습을 통해 터득되어야 한다(정금희, 1996). Ellis(1983)는 결혼전 여성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적어 이들이 향후 수유를 해야 할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여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혜숙(1993)은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은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모유수유에 대한 공공증과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머니들은 마지못해 인공수유방법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어머니의 지식을 모유수유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 Beaudry와 Dufour(1991)은 모유수유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상분만한 43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모유

수유 기간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라고 보고했다. 또한 Gulick(1983)도 성공적인 모유수유는 모유수유 과정과 분만전의 준비방법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는 모유수유에 대해 지식이 높은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에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Rubbins(1992)은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모유수유시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를 하기로 결정하고 지속시킨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모유수유의 성공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유수유를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위해 모유수유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유수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유를 먹이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모유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및 직장에서의 수유시설이라고 하였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간호사의 모유수유 권장등을 통해 이를 수 있다고 한다(이경혜, 1992). Houston 등(1988)등도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서는 분만초기에 병원에서 정책적으로 모유수유를 권장해야 하며, 특히 간호사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유수유법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모유수유의 실천에 미치는 요인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 지식은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수유형태를 파악하는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임의표출한 J 시내 1개 대학병원과 1개 보건소의 영유아실에 건강검진이나 예방목적으로 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 1) 1개월이상 12개월이하의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2) 아기나 어머니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결함이 없는 경우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자는 1개 보건소와 1개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2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총 120부 중 기입누락을 제외한 117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일반적 특성을 묻는 10문항과 수유형태를 묻는 1문항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묻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묻는 도구는 Gulick(1982)의 모유수유성공자와 실패자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관한 예비어머니들의 지식을 묻는 26문항의 설문지를 김숙영(1994)이 수정보완한 24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구성은 올바른 내용의 문항과 틀린 내용의 문항을 각각 50%씩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옳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구성했으며 바르게 응답한 문항은 1점,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문항은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 최고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 .80이었다.

5. 자료분석 방법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유실천 상태는  $\chi^2$  - test로 분석하였고,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수유실천과의 관계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조사는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4세 였으며 30세에서 34세 사이가 63명(53.8%)으로 대부분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92

명(78.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52명(44.5%), 전문대졸이 34명(29.1%), 대졸이상인 31명(26.5%)을 차지하였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62명(53%), 없는 대상자가 55명(47%)을 차지하였으며, 월수입은 101만원에서 200만원이 66명(56.5%)이었다.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71명(60.7%)이었으며, 양육보조자가 있는 경우가 66명(56.4%), 없는 경우가 51명(43.6%)을 차지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7)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25세미만	8	6.8	30.4±3.39
	25세-29세	36	30.8	
	30세-34세	63	53.8	
	35세이상	10	8.5	
직업	전업주부	92	78.3	
	취업주부	25	21.7	
교육정도	고졸	52	44.5	
	전문대졸	34	29.1	
	대졸이상	31	26.5	
종교	있음	62	53.0	
	없음	55	47	
월수입	100만원미만	22	19.1	198±119.15
	100만원이상-200미만	66	56.5	
	200이상	20	16.5	
	300만원미만			
	300이상	9	7.8	
분만형태	자연분만	71	60.7	
	제왕절개분만	46	39.3	
양육보조유무	있음	66	56.4	
	없음	51	43.6	
아기연령	6개월이하	80	68.4	5.23±3.52
	7개월-12개월	37	31.5	
아기성별	남아	59	50.4	
	여아	58	49.6	
출생순위	첫째	47	40.2	
	둘째	59	50.4	
	셋째	11	9.4	
수유형태	모유	29	24.8	
	혼합	17	14.5	
	우유	71	60.7	

대상자의 아기 연령은 평균 5.23개월로 6개월이하가 80명(68.4%)이 가장 많았고, 아기 성별은 남아가 59명(50.4%), 여아가 58명(49.6%)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

있으며, 출생순위는 둘째가 가장 많아 59명(50.4%)이었고, 첫째가 47명(40.2%), 셋째가 11명(9.4%)이었다.

2. 대상자의 모유실천

본 연구대상자의 모유실천은 모유수유가 29명으로 24.8%, 혼합수유가 17명으로 14.5%, 인공수유가 71명인 60.7%로 측정되어 우유수유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이는 1993년 서울의 종합병원과 보건소를 내원한 3세미만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 16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변수자 등(1994)의 연구에서 보고한 26.1%의 모유수유율과 권숙희 등(1994)이 부산과 경남의 병원 및 보건소 영유아 클리닉에 방문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모유수유 실천율 28.4%와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모유수유율이 증가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유형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수유형태별 실천과의 관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경제상태와 양육보조자 유무, 아기연령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김숙영(1994)의 연구에서 아기의 연령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기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이유를 조사해보고 모유수유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경제상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현이 등(1984), 권숙희 등(1994)의 연구와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모유수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본 연구 대상자 수가 적어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으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유형태 (N = 117)

특성	구분	모유수유 명(%)	혼합수유 명(%)	우유수유 명(%)	계 명(%)	$\chi^2$ 값	p
연령(세)	25미만	4(50)	2(25)	2(25)	8(100)	10.582	.06
	25-29미만	11(30.6)	6(16.7)	19(52.8)	36(100)		
	30-35미만	10(15.9)	9(14.3)	44(69.8)	63(100)		
	35이상	4(40)		6(60)	10(100)		
직업	전업주부	26(28.3)	14(15.2)	52(56.5)	92(100)	3.466	.08
	취업주부	3(12)	3(12)	19(76)	25(100)		
교육정도	고졸	12(23.1)	8(15.4)	32(61.5)	52(100)	1.080	.897
	전문대	9(26.5)	6(17.6)	19(55.9)	34(100)		
	대졸이상	8(25.8)	3(9.7)	20(64.5)	31(100)		
종교	유	15(24.2)	8(12.9)	39(62.9)	62(100)	.366	.833
	무	14(25.5)	9(16.4)	32(58.2)	55(100)		
경제상태 (만원)	100미만	11(47.8)	5(21.7)	7(30.4)	23(100)	15.174	.019*
	100-200미만	16(24.2)	8(12.1)	42(63.6)	66(100)		
	200-300미만	2(10.5)	3(15.8)	4(73.7)	19(100)		
	300이상	0(0)	1(11.1)	8(88.9)	9(100)		
분만형태	자연분만	15(21.1)	11(15.5)	45(63.4)	71(100)	1.307	.520
	제왕절개	14(30.4)	6(13)	26(56.5)	46(100)		
양육보조자	있음	11(16.7)	12(18.20)	43(65.2)	66(100)	5.915	.026*
	없음	18(35.3)	5(9.8)	28(54.9)	51(100)		
아기연령	6개월이하	24(30)	13(16.3)	43(53.8)	80(100)	5.294	.03*
	7-12개월	5(13.5)	4(10.8)	28(75.7)	37(100)		
아기성별	남아	11(18.6)	8(13.6)	40(67.8)	59(100)	2.881	.11
	여아	18(31)	9(15.5)	31(53.4)	58(100)		
출생순위	첫째	9(19.1)	5(10.6)	33(70.2)	47(100)	3.768	.21
	둘째	18(30.5)	10(16.9)	31(52.5)	31(100)		
	셋째	2(18.2)	2(18.2)	7(63.6)	11(100)		

P<.05

므로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보조유무가 모유수유실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육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육아를 담당해줄 수 있는 보조인이 곁에 있으므로 인해 육아문제를 분담할 수 있고 모유수유를 시키는 어려움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보여지고 또한 양육 보조자의 도움으로 아기를 양육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지식을 보조자로부터 학습한 결과라 보여진다. 이는 박성애(1997)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 연령, 직업, 교육정도, 종교, 분만 형태, 아기 성별, 출생 순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는 권숙희 등(1994)의 연구에서 연령과 학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박성애(1997)의 연령, 종교, 아기의 성별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규희(1989)와 홍대식(1982)의 연구에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현이 등(199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모유수유율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는데,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여러 가지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가 1980년에 비해 1990년대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대중매체나, 주위의 권유로 인한 모유수유 참가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직업과 수유와의 관계는 박성애(1997)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모유수유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차츰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으로 사료되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만형태가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성애(1998)의 연구와 김경희 등(1985)의 연구에서는 질분만일수록 모유수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차츰 분만장소가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 4.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모유실천

수유형태별로 각 군의 평균점을 살펴보았을 때 모유수

유군이 가장 높은 19.52점이었고, 다음이 혼합수유군으로 17.88점이었고, 우유수유군은 가장 낮은 16.23점이었다(표 3).

각 수유군의 평균점의 차이를 ANOVA test 한 결과 모유수유군과 우유수유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즉, 모유를 먹인 군은 우유를 먹인 군보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금희(1996), Beaudry(1989), Neaner(1989)등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유수유지식과 실천과의 관계를 입증한 김숙영(1994)의 연구와도 일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유수유를 하는 군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이것은 지식이 모유수유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원이나 기타 지역사회 단체에서 임산부나 수유를 준비하는 산욕부들을 대상으로 모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모유의 생성과정이나 모유수유를 준비하기 위한 유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도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정보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수유형태에 따른 모유에 대한 지식정도

수유형태	실수(명)	평균±표준편차	F	P
모유수유	29	19.52±2.18*	10.228	.000
혼합수유	17	17.88±2.80		
우유수유	71	16.23±3.83*		
계	117			

\* Scheffe' test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지식에 따른 수유형태를 파악하여 모유수유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J시내 1개 대학병원과 1개 보건소의 영유아실과 소아과에 내원한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이 없는 12개월 이하의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2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도구는 어머니와 아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10문항과 수유형태를 묻는 1문항,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24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

문지이며, 지식측정 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0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대상자의 수유형태는 모유수유가 29명(24.8%), 혼합수유가 17명(14.5%), 우유수유가 71명(60.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수유형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경제상태와 양육보조와 유무, 아기연령 이었다.
3. 수유형태에 따른 모유에 대한 지식은 모유수유군이 19.52점, 혼합수유군이 17.88점, 우유수유군이 16.23점의 순위를 나타내어 수유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 ).

이상의 연구결과로 모유를 먹인 군은 우유를 먹인 군보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고,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모유수유실천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1. 대상자수를 늘려 반복연구 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모유수유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방안이 필요하다.
3. 병원에서 분만전과 분만후의 올바른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권숙희, 김영자, 김영혜, 김인순, 문길남, 박금자, 박봉주, 박순옥, 박춘화, 배영순, 배정미, 백경신, 송애리, 이영운, 이근주, 이지원, 이화자, 정경애, 정은순, 최혜숙 (1994). 모유수유 실천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김숙영 (1994).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수유실천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이근, 김충희, 이근수, 신상만, 한동관, 문수지 (1985). 한국 영유아의 수유실태조사. *소아과*, 28(10), 8-12.

김미중 (1996). 산후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이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혜숙 (1993). 모유의 신비. 에드텍.

김혜숙 (1995). 의료요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및 지식정도의 비교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243-252.

김효진, 박영숙 (1992). 영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3), 377-396.

김화숙 (1991).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길현 (1986). 한국부인의 모유수유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구한의논문집*, 145-161.

박노원, 박영일, 박성림, 이원근 (1993). 서울시 일부지역 주부들의 수유실태. *가정의학회지*, 14(10), 661-669.

박인화, 황나미 (1994). 모유수유실태분석과 지원정책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옥희 (1992). 임신중 유방간호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2(1), 29-41.

박성애 (1997). 영유아 어머니의 수유방법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 (1994). 모유수유 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이경혜 (1992). 국내 모유수유의 실태. *생활간호*, 12, 114-116.

이은주 (1997). 산전 모유수유교육이 모유수유 실천 및 지식정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정금희 (1996). 모유수유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귀영, 이 근 (1983). 모유수유 실패의 원인. *소아과*, 26(6), 1-6.

조미영 (1992).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31(1), 28-34.

지미숙, 강길원 (1974). 일부 서울지역 영아 영양에 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11(1).

최순옥 (1987). 모유수유 교육이 그 실천에 미친 영향. 경북대학교 보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인구 보건 연구원 (1989). 우유와 모유수유의 증가 및 감소현상 비교 연구. 한국인구 보건연구원보.

Beaudry, M., & Dufour, R. (1991). Facteurs de réussite de l'allaitement maternel au Nouveau-Brunswick: information et conditions de travail compatible-Factors of successful breast feeding in new Brunswick: information and compatible wording condition. *Canadian Journal Public Health*.

82, 325-330.

- Beske, E. J., & Garvis, M. S. (1982). Important Factors in Breast-feeding Success. *MCN*, 7, 174-180.
- Ellis, D. J. (1983). Secondary School Student's Attitude and Belife about Breastfeeding. *JOSH*, 53(10), 600.
- Neander, W. L., & Morse, J. M. (1989). Tradition and Chnage in the Northern Alberta Woodlands Cree: Implications for Infant Feeding Practice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80, 190-194.
- Gulick, E. (1982). Informational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Feeding. *MCN*, 7, 370-375.
- Gulick, E. (1986). The Effect of Breastfeeding on Toddler Health. *Pediatric Nursing*, 12(1), 51-54.

- Abstract -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of Breast feeding and Practice of feeding pattern

Choi, S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of breast

feeding and practice of feeding pattern. A sample of 117 mothers who have the babies between age from 1 month to 12 months were selected from one university hospital and one public heath care center in J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the questionnaire during the period from the January. 5, 2002 through January. 30, 2002.

Analysis was done by using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scheff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omparision of the method of feeding by general characters. Income state, rearing ( $p=.019$ ), rearing supporters( $p=.026$ ), infant age( $p=.03$ ) have shown significant difference as the variables affecting Breast practice rate.

Breastfeeding rate were 24.8%, mixedfeeding type, 14.5%, milkfeeding type, 60.7%.

The mean of knowledge on breastfeeding by feeding patterns were the highest in the group of breastfeeding.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group of breast feeding and milkfeeding( $p=.000$ ).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knowledge of breastfeeding promoted practice of breastfeeding. Therefore, to promote practice of breastfeeding, it is necessary that nurses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about knowledge of breastfeeding.

Key words : Breastfeeding

---

\* Breast feeding